

아미코젠(주), 개별인정형 소재,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 근력 개선 효과 논문 게재

- ▶ 대조군 대비, 콜라겐 투여 시, 근 합성 단백질 촉진 54.8%, 근 분해 단백질 억제 25.3%
- ▶ 향후, 연구결과 기반 근력 개선 기능성 추가할 것

[2024-06-27] 아미코젠이 국제 저명 학술지를 통해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의 근력 개선 기능성 연구 결과를 입증했다.

헬스케어 소재 및 바이오 의약 전문기업 아미코젠(092040)의 개별인정형 원료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에 대한 경북대학교 권은영 교수팀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근력 개선 기능성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Functional Foods'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노인성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임상시험 연구 결과,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 투여 시, 대조군 대비 근육 합성 관련 단백질인 'IGF-1', '미오게닌(Myogenin)'의 활성을 촉진하고 근 분해 관련 단백질인 마이오스타틴(Myostatin) 및 아트로진(Atrogin)의 활성을 억제 및 약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혈중 지질 및 지방 합성 억제 및 지방량을 감소시켜 노화 진행을 통해 나타나는 근감소증과 더불어 체지방 증가도 억제함을 확인했다.

또한, 콜라겐의 핵심 지표 성분인 GPH(Gly-Pro-Hyp)도 근력 개선 기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체내 흡수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PEPT-1' 단백질을 촉진하고 혈액 및 분변 내 단백질 함량 변화를 통해 체내 흡수도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 내에 함유되어 있는 GPH의 경우, 국내 최대 함량이며 지표 성분의 기능성을 확인한 사례는 아미코젠이 최초다.

아미코젠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근력 개선 기능성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미코젠 헬스케어연구소 이중수 연구소장은 "최근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노인성 근감소증 증가에 대해 여러 국내외 유명 제약사들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승인된 치료제가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여러 식품 관련 업체에서 근력 개선 기능성 개별인정형의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는 지난 연구를 통해 근육 증강 기능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한 근력 개선 기능성과 체지방 감소 연구 결과를 확보해 당사의 개별인정형 콜라겐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의 근육 건강에 대한 기능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문 게재를 기반으로 향후, 인체적용시험 진행을 통해 콜라겐 개별인정형 기능성 추가 인증을 받아 콜라겐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미코젠은 작년 3월 식약처로부터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 등 피부 관련 2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